

“기쁨을 갖기 위함이니라”

더블류 유진 헨슨 장로
북아시아 지역 회장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니파이이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성구가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것은 인간을 낳게 하려함이요, 인간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니라.”

(니파이이서 2 : 25)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선언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을 성공적으로 찾게 해주는 어떤 특효약이라도 있습니까? 제 경험에 의하면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행복이나 기쁨은 개인이 노력을 통해 얻어야 하고 키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권능을 지닌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줄 수는 있지만 이것 역시 행복하라고 선언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축복이 위안과 지침의 근원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대부분의



축복은 신앙과 의로운 생활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우리는 모두 도덕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찾으려면 계명을 지키고 그러한 축복이 주어질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참다운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생활함으로써 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행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인도와 지시도 없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커다란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52편 14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또 거듭 너희가 속지 아니하도록 모든 일에 규범을 주노니, 이는 사탄이 땅에 널리 퍼져 있어 백성들을 속이려 다니는 연고니라.” 따라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계획을 통해 이 지상에서 생활하는 동안 속지 않고 참다운 기쁨과 행복을 찾기 위해 따라야 할 일정한 규범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우선 순위를 정할 때나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또는 어떤 행동을 취할 때 이러한 규범을 따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된 축복과 복음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을 알고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얻게 된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행복한 생활을 이룩하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야망을 가지십시오.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연령에 관계없이 일을 즐기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이웃과 지역 사회를 위해 기여하십시오. 어떠한 곳이든지 그 곳을 떠날 때는 여러분이 그 곳을 찾았을 때보다 더 발전한 모습을 보이십시오.

2. 자기 수양을 하십시오. 몸과 마음에 대한 자기 수양을 하십시오. 교리와 성약 88편을 숙지하시고 특히 118-126절의 내용을 익히십시오. 자신의 개인적인 업무 보고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하십시오.

3. 진실하십시오. 성실하도록 노력하시고 고결한 성품을 지니십시오.

4. 친절하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키우십시오. 사랑을 키우고 자상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항상 사랑을 베풀고 감사를 표하십시오.

5. 충실하십시오. 가족과 교회와 친구와 이웃과 국가에 충실하십시오.

6. 순종하십시오. 영에게 순종하시고 영의 인도와 지시를 구하십시오.

7. 현명하십시오. 계명을 지키시고 예언자에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영원한 것들을 구하시고 쾌락과 행복을 구별하십시오.

8. 봉사하십시오. 이웃에게 봉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9. 용서하십시오. 복수심을 갖지 마십시오. 근원에 대해 생각한 다음 행동을 취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는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거나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을 요구하노라.”(교리와 성약 64 : 10)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도 역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항상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점은 모든 일이 끝난 뒤에 주어진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규범”을 이해하기 위해 엘마의 다음 말씀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원하노니 너희는 겸손하고 순종하며 온유하라. 쉽게 권고대로 행하라. 인내심을 가지며 오래 참으라. 범사에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런히 지키라. 세상의 것이거나 영적인 것이거나 필요한 대로 모두 하나님께 구하라. 무엇을 얻게 되든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돌리라.

“또한 신앙과 소망과 사랑 갖기를 힘쓰라. 그리하면 네가 늘 풍성한 은혜를 받으리라.”(엘마서 7 : 23~24)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또한 여러분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니파이사서에 나오는 니파이의 아들 니파이가 언급한 백성들과 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백성들의 마음에 깃들어 온 땅에 불화가 일지 아니하였고,

“시기나 분쟁이나 폭동, 음행, 거짓말, 살인 등 온갖 음란한 짓을 범치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인간 중에서 이들보다 더 행복한 백성이 없었으니”

(니파이사서 1: 15~16)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구세주의 탄생을 축하하는 영광스런 계절이 다가옴에 따라 주님의 가장 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런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간증드립니다. 아멘. □

역원 변경

- 서울 스테이크
중앙 농아 지부 지부장 : 이혜택 형제 (전임자 : 김정환 형제)
- 서울 동 스테이크
상계 2와드 감독 : 김인구 형제 (전임자 : 이재두 형제)
- 강서 스테이크
영등포 지부 지부장 : 장동민 형제 (전임자 : 김중영 형제)
- 대구 스테이크
경주 지부 지부장 : 정병렬 형제 (전임자 : 최명석 형제)
안동 지부 지부장 : 안재득 형제 (전임자 : 류운하 형제)
- 부산 서 스테이크
진주 와드 감독 : 최재수 형제 (전임자 : 김진호 형제)
- 강릉 지방부
삼척 지부 지부장 : 김원기 형제 (전임자 : 김남주 형제)

• 새로운 성전 건축 계획이 연차 대회에서 발표됨 • 관리 감독단 및 기타 조직 변경

10월 4일과 5일, 양일간에 걸쳐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62차 연차 대회의 토요일 모임에서 대관장단은 세 곳의 성전 신축 계획과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새로운 회원 2명의 부름 및 관리 감독단의 새로운 보좌 2명의 부름을 발표하였다.

그 외에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매리 온 디 행스 장로와 로버트 엘 백맨 장로가 명예 총관리 역원으로 지지받았으며,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6명의 회원이 5년간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해임되었다.

또한 대관장단은 교회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과 청남 조직의 개편을 발표하였으며, 발표되었던 2명이 이번에 칠십인 제이 정원회 회장단의 일원으로 지지받았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홍콩과 코네티컷 주의 하트포드 및 유타 주의 유타 군에 건축 예정인 성전 부지가 결정되었다. 코네티컷 주에 세워질 성전은 뉴잉글랜드 주와 뉴욕주의 회원들이 이용하게 되며 유타 군 성전은 프로보 성전의 과중한 짐을 덜어주게 된다. 현재 프로보 성전은 예상 수용 능력을 초과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타 군에 세워질 성전의 부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 교회 관리 감독단의 제1보좌와 제2보좌로 봉사해 왔던 헨리 비 아이어링 감독과 글렌 엘 페이스

감독이 각각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회원으로 부름받았다. 최근 아이어링 감독은 교회 교육 기구 교육감으로 임명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 직책을 맡게 된다.

▶ 로버트 디 헤일즈 관리 감독의 제1보좌로 솔트레이크 출신인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형제가 제2보좌로 유타 주 센터빌 출신인 리차드 시 에즐리 형제가 부름받았다.

▶ 행스 장로와 백맨 장로의 후임으로 찰스 디디에이 장로와 엘 알든 포터 장로가 칠십인 회장단의 일원으로 지지 받았다.

▶ 조지 알 힐 3세 장로, 존 알 라스터 장로, 더글러스 제이 마틴 장로, 글렌 알 러드 장로, 더글러스 에이치 스미스 장로 및 린 에이 소렌슨 장로가 칠십인 제이 정원회에서의 봉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임되었다.

▶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의 회장인 휴 더블류 피녹크 장로, 제1보좌인 하트만 렉터 2세 장로, 제2보좌인 클린튼 엘 커틀러 장로가 해임되고 후임으로 멀린 알 리버트 장로가 본부 주일학교 회장으로, 커틀러 장로가 제1보좌로, 로날드 이 포울맨 장로가 제2보좌로 부름받았다.

▶ 본부 청남 회장단의 제1보좌인 로버트 케이 텔린바흐 장로와 제2보좌인 스티븐 디 네이돌드 장로가 해임되고, 후임으로

제1보좌에 네이돌드 장로와 제2보좌에 엘 리오넬 켄드릭 장로가 잭 에이치 고슬린드 본부 청남 회장과 함께 봉사하도록 부름받았다.

본부 주일학교 및 청남 회장단은 칠십인 정원회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연차 대회가 끝나고 2주 후에 영국에 새로운 성전이 건립된다고 발표되었다. 10월 18일~20일에 있었던 영국 런던 성전 재헌납식에서 힝클리 부대관장은 영국에 두번째 성전을 세울 부지가 결정되었다고 말씀했다. 영국 프레스톤 성전으로 불릴 이 새로운 성전은 영국 북부와 스코틀랜드 및 아일랜드에 있는 20개 스테이크의 성도들이 이용하게 된다. 건축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

편집자 주: 연차 대회 및 9월 26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개최된 여성 대회에 관한 전체적인 보고는 성도의 벗 1993년 1월호에 실리게 된다.

.....

귀환 선교사 간증

연극을 통한 개종



이선희 자매

일년 반.... 이 기간을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너무나 아름다운

복음의 모습들을 보았으며 그 복음으로 변화되는 많은 소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제가 만났던 한 자매님의 개종 이야기를 통해 저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김 자매님을 만난 것은 연극 때문이었습니다. 김 자매님의 동생은 오래 전부터 회원이었으며 열심히 활동하는 분이었습니다. 동생은 언니를 늘 복음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어느날 그 동생이 저와 동반자를 찾아온 것도 그러한 부탁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연한 것처럼 언니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언니의 환경과 집의 위치를 알려 주었습니다.

며칠 뒤 동반자와 이야기를 나눈 후 먼저 그 주변을 가가호호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옆집부터 가가호호 방문을 시작했고 마침내 김 자매님 댁의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자매님이 문을 열고 친구와 함께 나왔습니다. 친구를 보내자마자 우리는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안녕하세요?” 저희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선교사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께 저희가 가진 아름다운 것들을 나누고 있습니다”라고 인사드렸습니다.

김 자매님은 우리를 잠시 바라보다가 어느 교회인지를 물었습니다. “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들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동생이 다니고 있는데 혹시 김×× 자매를 알아요?”

“김××자매요? 그러면 김×× 자매님의 언니되세요?”

“김 자매님에게서 언니가 이

근처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뵙게 되다니...” 동반자와 저는 멋진 연극으로 인해 쉽게 집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며 이러한 “우연 아닌 우연”으로 김 자매님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시간 동안의 방문은 정말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자매님은 사십 오년간의 자신의 삶에 대해 숨도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하였으며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말은 “안녕히 계세요 다시 방문하겠습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방문하겠다고 했지만 저도 동반자도 다시 방문할 용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두 세달이 지나고 김 자매님의 동생은 다시 우리에게 언니를 방문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두려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김 자매님은 매월 남편과 함께 정기적으로 절에 다니고 계셨고 집안 어디에나 부적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더 두렵게 하는 것은 그분이 복음을 전하려는 우리의 의도와는 너무 먼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방문했을 때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지만 좋은 신뢰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간간히 우리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동반자와 저에게 ‘토론을 듣도록 권유해야 한다’는 똑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 둘다 용기를 내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동반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상상 외로 자매님은 너무 쉽게 토론을 듣겠다고 대답했고, 그 집을

나서면서 우리는 뿔뿔이 기뻐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토론이 시작되었으며 기독교 배경이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토론 절반을 하는 데 두 세 시간이 걸렸습니다.

두 달 동안 토론은 잘 진행되었으며, 자매님은 물론경과 성경의 정해진 부분을 부지런히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토론 후, 손을 맞잡고 기도하면서 함께 울었던 그 특별한 느낌들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침례가 토요일로 정해졌고 접견 만이 남았습니다. 그 주 목요일 밤에 자매님은 심상치 않은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침례를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남편이 반대해서... 종교가 다르면 우리는 결코 다시 결합할 수 없다고...” 자매님은 집안의 어떤 문제로 인해 별거 중이었으며 침례를 받고 그로 인해 남편과 영영 헤어진다면 그것은 결코 자매님이 의도했던 바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다음날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자매님 댁으로 달려갔으며 자매님이 앉으면 앉아서, 누우면 함께 누워서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도록 아무런 방책이 없었으며 거의 실망하여 포기해야 하는 상태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매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동안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꿈을 꾸게 되었는데 비탈진 언덕에서 커다란 짐을 실은 리어커를 자매님이 앞에서 끌고 저와 동반자는 뒤에서 밀고 있었습니다. 가파른 언덕 꼭대기에 마지막 한 발을 힘차게 내디디면서 저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야, 다왔다!”

그 발짓으로 인해 잠이 깼고 그 꿈을 동반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매님이 들어오시자마자 꿈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무거운 짐을 끌고 자매님 혼자만이 가도록 버려 두지 않고 침례를 통해 우리는 자매님을 뒤에서 밀며 함께 그 짐을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찌면 '꿈보다 해몽'이라고, 그 이야기를 통해 자매님은 용기를 가졌으며 그주 토요일에 우리는 영을 동반한 침례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김 자매님은 지금 한 와드의 상호부조회 회장단 보좌로 부름받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김 자매님의 가정이 복음 안에서 훌륭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그것이 너무 먼 것처럼 보이지만 그 꿈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김 자매님의 주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이 인연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원리는 지극히 단순하지만 그것이 이루어내는 변화는 너무도 커다란 것입니다. 일년 반 주님께 봉사했던 기간은 결코 쉬운 시간들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만큼 행복했고 주님의 힘에 의지했던 시간이 없음을 압니다.

주님께서 제게 허락하셨던 사랑, 그분의 순수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침례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제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제가 만날 수 있었던 가장 고귀한 영혼임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시간 동안 김 자매님과 같은 분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면서 느낀 한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서 부끄럽게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부산 지역 교회의 새로운 장을 연

복음 2세대의 선교사 출발

지난 8월 23일은 부산 지역의 교회사에 있어서 또 하나의 의미있는 기록을 새기는 날이었다. 마침내 이 지역에서도 순수한 물몬 2세가 복음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광고가 온천 와드 성찬식에서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신상철 형제님이 복음 선교사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동안 복음 1세대들의 자녀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일이 전혀 없었던 바는 아니나, 청소년 시절에 개종하여 교회 안에서 가정을 이룬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복음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은 이 신형제의 경우가 40여년 부산 지역 교회사에 있어서 실로 처음이었다.

그러므로 신상철 형제의 부름은 적어도 부산 지역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신선한 감동이요, 충격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의 부모인 신진영 형제와 권두익 자매는 복음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두드러진 삶을 살아 온, 이 지역

성도들의 가장 든든한 이웃이다.

신진영 형제가 복음에 눈을 뜨게 된것은 1956년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다. 19세 때인 1958년에 침례를 받고 본격적인 신앙 생활을 한 그는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고 김호직 장로님의 충애를 받았던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추억이라고 말한다. 김 장로님은 특히 그의 하모니카 솜씨를 매우 칭찬하셨다고 하는데, 그의 하모니카 솜씨는 지금도 여전하다.

그가 가장 존경하는 교회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인 배영천 형제님의 주례로 권두익 자매와 결혼을 하고 곧이어 동래 지부(현 온천 와드)의 지부장이 된 것이 30세 때. 캐나다 출신 선교사인 넌(Nunn)장로로부터 지부장의 직분을 넘겨 받음으로써 그는 동래 지부의 최초의 한국인 지부장이 되었다.

그로부터 14년간, 그는 동래 지부 지부장과 온천 와드 감독으로



신상철 장로의 백일 기념 사진. 좌로부터 아버지 신진영 형제, 신상철 장로, 어머니 권두익 자매

봉사하면서 참으로 후회없는 봉사와 희생의 삶을 살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교회의 건물을 구입하고 새로운 건축을 하는 일에 그는 온 열성을 다 쏟았다. 건축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옛 업전으로 벡타이 핀을 만들어 판매한 일, 상호부조회 자매들을 독려하여 수예품을 만들게 하고 여러 차례 바자회를 열었던 일 등의 열매는 어엿하게 그 위용을 갖춘 온천 와드 건물이 말없이 웅변해 주고 있다. 그 무렵 권 자매는 지부의 상호부조회 회장으로서는 남편을 가장 직접적으로 도운 신앙의 동반자였다.

신진영 형제가 지부장으로서 부름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신상철 형제가 태어났다.

신상철 형제는 어쩌면 복음의 원리 안에서 성장한 가장 이상적인 표본의 하나일 것이다. 태어나자마자 곧 유아 축복을 받고 여덟 살에 침례를 받았으며 합당한 때에 각 신권의 반차를 거쳐 복음 선교사의 부름을 받게 된 오늘날까지 착실하게 복음의 단계를 밟아 걸어 온 것이다. 무엇보다도 고3 때 성찬식에 한번도 빠지지 않았음은 물론, 적극적으로 교회 활동에 참여하면서도 명문 대학교의 치과대학에 합격한 것은 부산 지역 모든 청소년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신상철 형제는 와드 청남 회장단 보좌, 장로 정원회 회장, 보이스카웃 지도자 등을 역임했다.

그는 남달리 많은 달란트를 지니고 있다. 국민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줄곧 반장을 한 것 하며, 미술, 웅변 글짓기 등 각종 대회에서의 수상 기록이 그것들

말해 준다.

그것은 아마 그가 태어날 때 그의 어머니가 보여준 간절한 염원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다. 어머니 권두익 자매는 아기를 받게 되면 땅에 내려 놓기 전에 반드시 아기를 표준 경전 4권을 쓴 보자기 위에다 먼저 내려 놓아 달라고 당부하였다. 물론 아버지 신상철 형제는 그 당부대로 행했다. 마치 무슨 거룩한 의식처럼 행해졌을 그 행위 속에 하나님의 영의 자녀를 받아들이는 겸손한 젊은 부모의 온갖 꿈과 소망이 다 담겼으리라.

신진영 형제의 자녀 교육은 일관된 하나의 지침에 따라왔다. 그것은 자녀들이 스스로 자유의지를 의롭게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확실하고도 뚜렷한 목표를 세우게 되었다. 신상철 형제가 치과 의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은 국민학교 1학년 때의 일로서 그것은 무엇보다도 교회의 부름을 수행하고 봉사의 삶을 사는 데 가장 적당한 직업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신 형제가 선교사가 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가 어렸을 때, 그의 집은 이웃에 '선교사의 집'으로 알려졌을 정도로 날마다 선교사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고 그의 부모는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선교사들과 아낌없이 나누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그의 가슴에는 일찍부터 선교사의 꿈이 싹트고 있었던 것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 이것은 이들 가족의 변함없는 생활 목표이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 어떤 부름이든지 기쁜



신상철 장로의 첫돌 기념

마음으로 행하는 것 등은 이 가족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들이다.

현재 부산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으로 봉사하고 있는 신진영 형제는 평생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사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기에 부족하나마 인생을 주님께 다 바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다.

이제 신상철 형제는 이 지역 성도들의 선망과 기대 속에 선교사로 떠났다.

신상철 형제의 뒤를 따를 복음의 2세들이 오늘도 초등학교에서 혹은 청소년 모임에서 간증과 신앙의 벽돌을 하나씩 쌓아 가고 있다. 지금 바야흐로 이 지역 교회사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신 형제의 선교사 부름이 교회 발전의 뜻깊은 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요즈음은 매일 매일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산다.”는 신진영 형제의 고백이 복음의 원리 안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우리들 모두의 것이 되기를 또한 소망한다.

신상철 장로, 파이팅! □

기사 제공: 전영준 형제

Korean
Jung-Ae Kim Organ Recital
Assisted by Marden Pond, Trumpet



Saturday, October 3, 1992 • 8:30 p.m.
Assembly Hall, Temple Square, Salt Lake City

김정애 자매 템플 스퀘어에서 오르간 독주회 개최

미국 유타 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소재한 유타 대학교에 교환 교수로 파견된 권찬태 형제의 자매이자 세 아들(영준, 영민, 영훈)의 어머니인 김정애 자매는 지난 10월 3일(토) 오후 8시 30분에 템플 스퀘어의 어셈블리 홀에서 파이프 오르간 독주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은 '92 교회 반연차 대회 첫날로서 토요 모임의 신권 총회가 끝난 직후에 개최되어 세계 각국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서희철 형제의 기도로 시작된 이날 독주회에는 한인상 장로를 비롯한 많은 한국 성도들과 리버트 장로, 스펜서 팔머 박사 등 한국과 관련된 많은 미국 성도들이

참석하여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 연주를 들으면서 성도들간의 우정과 사랑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김정애 자매는 현재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팔리 엘 벨납 박사 아래서 파이프 오르간을 공부하고 있으며, 지난 7월 4일 미국 독립 기념일에는 프로보 시 주최 독립 기념 음악 축제에서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한 바 있어, 미국에서 한국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

기사 제공 : 권찬태 형제

아흔 된 아버님의 침례

전영배 형제(신장 지부)

3남 5녀의 맏아들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살림에 몸이 불편하지 않으면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가족의 생계를 꾸려 나갈 형편이었습니다.

항상 의를 존중하고 화목과 형제간의 돈독한 우애를 신조로 가장으로서의 책임 이외의 것은 모르고 생활해 왔습니다. 슬하에는 선인장과 같은 자녀가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두 선인장을 가꾸는 데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그 선인장은 성장의 과정이 무척 더디고 무성히 자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유혹과 어려운 삶의 고통속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진실한 삶의 목적을 외면한 채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 선인장 중의 하나인 저는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나름대로 수양을 하기 위해 산에 올라가 기도도 해보고 유명한 사찰을 방문하기도 하면서 집에서는 불경 공부를 하거나 사주 철학을 배워 찾아오는 손님들의 사주도 보아주었고, 그것도 부족하여 음양 오행침을 배워 환자 치료와 그 회복의 과정을 맛보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안 사람에게 질병이 내습하여 즐거움을 모르고 4년 동안을 무의미하게 살아 왔습니다.



병명은 후두암이었습니다. 사람의 삶이 형통치 못하면 의지하려는 마음이 파도와 같이 일기 마련인가 봅니다. 그러던 중 두 명의 선교사가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중 김대성 장로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 보다도 어린 나이였지만 그분의 말은 저의 마음속에 와 닿았습니다. 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마음속에서 나도 주님의 모범을 따르리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1991년 12월 15일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고 신앙 생활을 한 지 9개월 후에 저는 생각지도 않았던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세가 90이 되신 노부께서 침례를 받으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9순이나

사셨고 천식에도 차멀미까지 하시는 부친께서 어떻게 침례를 받으실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매일 저의 집에 찾아오시는 김옥수 장로와 곽재용 장로는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었고 주님께서 이 일을 성취하도록 도와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며 부친께 온갖 정성을 쏟았습니다. 복음에 감동된 부친께서는 안경 너머로 떠들 떠들 몰몬경을 읽으시고 철부지 어린 아이처럼 침례받기를 고대하시며 기도드리는데 그 모습에 저 역시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천식의 숨소리가 편안하게 들렸으며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기 때문입니다.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기쁨을 모를 것입니다.

드디어 침례일, 1992년 8월 23일 오후 2시 30분, 9순의 아버지께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날 역시 주님께서서는 충만한 기쁨을 주셨고, 우리 신장 지부장님과 형제 자매님, 천호 와드 감독님과 형제 자매님들의 축복을 받으며 의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형제 자매님, 노인이라 해서 침례에 무관치 말고 생전에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침례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이 모든 의식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니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시다.

이 모든 말씀을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 드립니다. 아멘. □

선교사 훈련원 제144기

(1992. 9. 21~1992. 10. 2)

〈성명〉	〈출신지〉	〈선교부〉
배정운 장로	대구 ST / 중리 W	서울 서 선교부
김동의 장로	광주 ST / 순천 B	서울 서 선교부
서영주 장로	광주 ST / 금성 B	서울 서 선교부
남상병 장로	부산 ST / 연산 B	서울 서 선교부
박미애 자매	부산 ST / 수정 W	서울 서 선교부
한현정 자매	서울 ST / 청운 W	부산 선교부



뒷줄 왼쪽부터 : 배정운, 김동의, 서영주, 남상병,
앞줄 왼쪽부터 : 박미애, 한현정

바로 잡습니다

10월호 '선교사 훈련원 제143기' 기사중 사진 설명이 잘못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바로 잡습니다.



앞줄 왼쪽부터 : 김혜영, 노경례, 김상경, 송희선, 이은숙, 김명녀.
뒷줄 왼쪽부터 : 한용희, 김훈, 정국호, 안병선, 이주형, 신상철, 이경, 황동주